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사도행전 1,1-11

화답송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자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에페소 1,17-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 마르코 16,15-20

성가 | 입당성가 [140,1~3] 예물준비 [258]
영성체 [417] 파견곡 [주보: 엄마의청춘]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임순남 엘리자벳	김미혜 이레나
김준일 베드로, 김영복 아녜스	이아오스딩
정정옥 스테파노	정유나 실비아 가족
문종란 글라라	김미화
생미사	봉헌
세상 모든 어머니들	익명
윤향구 알렉산더	익명
이남석 베드로, 이서원 마리로사	익명
유선옥 베로니카, 유비타 가정	익명
김택영 알버트, 김혜숙 마리아	익명
대모 김승애 클라라 영육건강	대녀 류유리 마태아
김영희 클라라 영육건강	류유리 마태아
모든 어머니들	학부모회
어머니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아녜스, 이병국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21살 생일축하	이지훈아녜스, 이병국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21살 생일축하	이영애 레지나
표해심 카타리나 영육건강	익명
윤숙경 마리아 영육건강	윤루시아
김기례 레지나 영육건강	윤루시아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5월 12일	정유진	민완준	김승연	김승연	민덕미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5월 19일	김유화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김종선	김실비아 이우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목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77,601단

▶유아세례 축하드립니다.



김나나 라파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Mt5,14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5.2 아타나시오 5.3 필립보 5.3 (작은)야고보
5.14 마티아 5.22 리따 5.26 필립보네리 5.31 엘리사벳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대미아노 흠/ 성당 밖 좌측 20m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장소: Broadway Btn31/32st
문의: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후원금접수: 사무실 또는 재무데스크.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바자회 판매용 흰 옷은 세탁하여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모금액 현재: \$8,035

강호영, 이영애, 큰집, 원조, 성모회양말판매(\$1,315), 진홍섭, 박기목, 민완준, 조남록, 강혜숙, 강명옥, 윤동진, 노사비나, 윤숙경, 안선정, 박인영

▶5월, 성모성월 '공동 목주기도'

가톨릭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정하여 교우들이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과 함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보다 견고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목주기도와 더 친근해지길 기대하며,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오전 08시 50분, 대성당

5/12(일)	희망의 모후 Pr.
5/19(일)	우리즐거움의 원천 Pr.
5/26(일)	우리즐거움의 원천 Pr.

Mother's day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특별히 우리 본당의 모든 어머니께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빌어드립니다.

엄마의 청춘 (미사 파경곡) ♪

아 이세상의 부모마음 다같은 마음,
아들딸들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울엄마인데,
아 눈치없는 엄마라고 말하지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아 원더풀 원더풀 엄마의 청춘-
브라보(브라보) 브라보(브라보) 엄마의 인생

아 이세상의 엄마들은 많고 많지만,
마음으로 빌어주는 멋쟁이엄마-
말썹부린 내모습도 사랑해주는,
아 우리엄마 사랑해요 정말좋아요
이제부터 엄마위해 효도할게요,

아 원더풀 원더풀 엄마의 청춘
브라보(브라보) 브라보(브라보) 엄마의 인생 ♪

▶첫 고해성사 안내

일시: 매주일 8:40am부터(5/26까지) 장소: 아래성당 고해소
대상: 3/30(부활성야) 세례성사 받은분들

* 첫 고해는 세례 후 교회의 깊은 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전례입니다. 교우분들과 대부모님들은 신앙의 자녀들이 첫 고해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삶을 내면화시키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운 카타리나 646-696-4680

▶사업체 후보 광고 1년 신청 안내

후보에 홍보가 필요한 사업체의 신청받습니다.
신청: 미사후 재무데스크 *신청 마감일을 지켜주세요 5/19(주일)
신청비: \$300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명함과 함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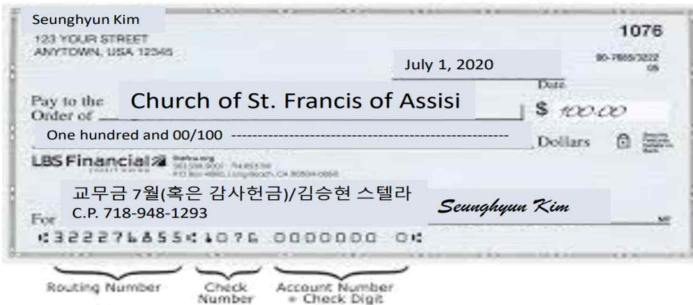
공지사항

기부

주보

-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하단의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 A.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미동북부 ME 80차 부부주말

World Wide Marriage Encounter(WWME)는 혼인한 부부가 대화를 통해 부부 관계를 성장시키며 사랑의 일치름 이루어 더욱 깊은 혼인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운동입니다.

날짜: 5/25~27 장소: 뉴욕롱아일랜드 헌팅턴산학교 참가비: \$100(부부)

문의: 장철순 스테파노, 장혜윤 크리스티나 646-322-3484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i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방법

| 이상재 가톨릭 신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라는 노래가 장난꾸러기 어린이들에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다 영양실조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데, 하늘로 오르는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신을 신고 팔짝 뛰어보면 관절통 하늘, 신경통 하늘이 펼쳐질까 걱정입니다.

하늘은...? 지구 표면, 땅 위쪽은 모두 하늘입니다. 발바닥 위쪽... 발목도 하늘에, 무릎도 하늘에, 머리도 당연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지만, 하느님 나라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믿음 강한 귀부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귀부인이 ‘여왕님은 저희 집을 방문한 최고의 손님’이시라며 집 안으로 모시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실망하며 “이 집을 방문한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셨던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귀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집의 손님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저희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늘로 오르는 방법은 하느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에페 4,1-3 참조)

‘말라버린 식빵을 촉촉한 식빵 사이에 두면... 다시 촉촉해집니다.’